

제97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4.05.16.(목) 15:00 ~ 17:30

2. 장 소 : 온라인회의(ZOOM)

3. 참 석 : 위원 총 13명 중 13명 참석

- 참석위원 : 이재호 의장, 노재성 부의장, 강원구 평의원, 김주용 평의원, 김태균 평의원, 김흥환 평의원, 노승중 평의원, 박상현 평의원, 윤소라 평의원, 이원재 평의원, 이흥서 평의원, 허준석 평의원, 호정화 평의원
- 배석 : 의과대학장, 기획처장

4. 의 안

○ 보고사항

- 대학평의위원회 관련 규정류 개정 보고

○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5. 주요 회의 결과

가. 보고사항

○ 대학평의위원회 관련 규정류 개정 보고

- 기획팀장이 대학평의위원회 관련 규정류 개정을 보고하고,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칙 개정 이후 조교대표 평의원을 새로 위촉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 이재호 의장은 조교대표 평의원의 피추천자 자격을 확인하고, 선출하는 방식을 질의하다. 기획 팀장은 조교를 대표하는 조교회가 없기에 원우회에서 조교대표 평의원을 추천할 예정이며 총학생회에서 학생대표 대학평의원을 추천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나.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기획처장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간서명 란>

의 장

0/34

- 제4조 별표1, 제9조 제1항, 제9조 별표5, 제43조 제4항, 제50조 제1항, 제54조 별표5 : 첨단분야 단과대학/학과/전공 신설 및 변경 내용 반영
- 제9조 별표5, 제42조, 제54조 별표5 : ai Lab, 자유전공학부 신설에 따른 내용 반영
- 제21조 별표9 : 정원 순증 및 학사조직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 정원의 전담학과 운영 반영
- 제36조 제2항, 제50조 제3항 : 의학과 재학연한 구체적 명시

- 이재호 의장은 첨단바이오융합대학 신설과 관련하여, 단과대학 신설 진행 경과, 향후 계획 및 미래 전망에 대해 학내 구성원에게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음을 알린다. 이에 기획처장은 준비 중이라고 답변하다.
- 위원들은 의과대학 증원 관련 다음과 같이 논의하다.
 - 의과대학장은 정원 순증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여건 준비 상황을 보고하다.
 - 노재성 부의장은 의대 증원이 40명에서 120명으로 3배가 증가하는 만큼 대학평의원에서 학교의 계획이 합리적이며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학교의 준비 상황이 어떠한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다. 이에 의과대학 증원 신청 시 학교에서 교육부에 제출한 연도별 준비 계획서를 요청하였으나 사전에 대학평의위원회에 공유하지 않은 사유를 질의하다. 의과대학장은 해당 자료는 교육부의 조사목적 외 활용공유를 금한다는 대외비 지침에 따라 제공이 불가함을 답하다.
 - 노재성 부의장은 교육부에 제출한 교수 충원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2027년까지 3년 동안 매해 10명 내외씩 30명 정도를 충원하고 이후 3년간은 제2병원 건립과 평택 병원 건립 시기와 맞춰 기간 중 180명 가량으로 신청했음을 밝히다. 다만 이 숫자는 변동 가능성이 있음을 양지해 달라고 요청하다. 의과대학장은 아주대학교의 기초 교원과 학생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학생 증원 후에도 수도권의 타 의과대학 비율과 비슷한 수준임을 설명하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기초 교원을 점증할 계획임을 설명하다.
 - 이재호 의장은 의대 증원 대비에 따른 재정 소요 계획을 질의하고, 기획처장은 정원 배정 후 교육부에 제출한 7개년 투자 계획서에 따른 재정 소요 계획을 답하며, 재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을 설명하다. 이재호 의장은 막대한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법인의 기여 금액, 사학진흥기금 최대 기채 가능 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다. 구체적 금액을 질의하는 사유는 정원이 10% 이상 증가함에 따라 매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인증평가를 진행할 예정으로 인증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고, AU50 건물 신축 등 대학에서 투자가 필요한 다른 상황도 있기에 세밀하고 철저하게 재정 준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임을 설명하다.
 - 강원구 평의원은 이번 의대 증원은 학교의 발전과 위상 제고를 위한 특별한 기회라고 여긴다고 말하며, 학교의 준비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김태균 평의원은 의대 증원은 학교의 오랜 염원이고, 현재 상당수의 사립대학이 학칙 개정을 완료하였음을 전달하다. 본 회의에서는 하나하나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보다는 학칙 개정을 진행한 이후에 문제 없이 교육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김흥환 평의원은 금번 의과대학 증원 결정이 의과대학 교수의 의견 반영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다. 다만, 의대 증원 문제가 학교 숙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정원은 학칙에 반영하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건물 증축, 교수 총원 등에 관한 준비 사항은 의과대학과 본교가 긴밀하게 논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추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내용이라는 점을 언급하다.
- 호정화 평의원은 학교 준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다. 의대 증원은 정부와 관련되어 있고, 긴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다. 그러나 이번 의결이 미래 학교가 결정해야 할 수많은 상황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기에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쫓기듯 결정하기보다는 현 회의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사실에 기반해서 학교의 준비성을 검증하고 이에 대해 평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기획처장은 학교에서는 시설, 공간 등 거시적이고 주요한 내용에 대한 준비는 갖췄고 이에 대해 보고했으며, 그 외 대학평의회에서 요청하는 자료는 향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라는 점을 설명하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모든 수치를 정하고 공유하는 것은 오히려 향후 준비 과정에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어서 모든 구체적인 수치를 보고하지 못하는 점을 평의회에서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다.
- 이흥서 평의원은 의과대학 학생이 5월 20일까지 수업에 참석하지 않을 시 유급이 확정되는 것인지, 유급이 될 시 2025학년도 1학년 학생 162명이 수업을 들을 강의실 등 교육 환경이 보장되어 있는지 질의하다. 의과대학장은 5월 20일 개강 이후 계속 참석하지 않을 시 유급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학생, 학부모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음을 밝히다. 의과대학 강의실은 평가원의 권고에 따라 정원 120명의 120%를 상회하는 150명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준비했으며 대량유급이 발생하면 180명이 수용 가능한 혜강관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실습 공간은 건물 신축으로 162명이 수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다.
- 노승중 평의원은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 합의와 공감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문제 없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고 교육 기간이 긴 의과대학의 경우 특히 장기적으로 증원을 준비해야 하지만, 교육부 정책의 급변과 증원 신청 기한의 촉박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다. 이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학칙 개정부터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다.

- 노재성 부의장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교육 역량의 범위를 벗어난 금번 증원 규모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의과대학 교수들은 2028년 이전 20명, 2029년 이후 40명의 정원 증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음을 말하다. 10% 이상 증원 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증 탈락 시 폐교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다. 또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이에 대한 의과대학장의 의견을 묻다. 의과대학장은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개인적인 의견이 필요하기보다는 정부,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교육의 질적 저하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아니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학교가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면 학장으로서 어떻게든지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답변하다.
- 기획처장은 인증평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과 본교 등에서 의료원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음을 표명하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증원 인원을 통보받은 현 시점에서 학칙 개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사결정은 배정받은 80명을 증원하거나 아니면 아예 증원을 못 하게 되는 것에 관한 결정임을 알리다.
- 이재호 의장은 정원 신청부터 학칙 개정 과정까지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다. 또한, 수치를 개략적으로라도 확인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 차이를 초래하며, 오늘처럼 대학평의원회에조차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히다. 향후 정확한 판단을 위해 논의 과정에서 대학 본부가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다.
- 위원들은 학칙 개정의 가부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기로 하다. 투표 결과 찬성 9표, 반대 4표로 의원정수의 과반의 찬성으로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다.

2024.05.16.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 장	이재호 (서명)	이재호
부의장	노재성 (서명)	노재성
평의원	강원구 (서명)	강원구
평의원	김주용 (서명)	김주용
평의원	김태균 (서명)	김태균
평의원	김홍관 (서명)	김홍관
평의원	노승중 (서명)	노승중
평의원	박상현 (서명)	박상현
평의원	윤소라 (서명)	윤소라
평의원	이원재 (서명)	이원재
평의원	이홍서 (서명)	이홍서
평의원	허준석 (서명)	허준석
평의원	호정화 (서명)	호정화

<간서명 란>

의 장

이재호